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796천 Km ²	G D P	1,488억 달러 (2008년)
인구	177백만 명 (2008년)	1 인 당 GDP	841달러 (2008년)
정치체제	연방의회제	통화단위	Pakistani Rupee (PR)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70.41 (2008)

-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해와 인접하고 있으며, 1947년 8월 17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음.
- 농업 및 섬유제품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 재정수지 적자 증가, 과도한 외채부담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친미 정책으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를 받아 최근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음.
- 그러나 집권 연합정부의 붕괴에 따른 정국 혼란, 식료품 가격 급등을 비롯한 경제난, 이슬람 무장세력의 지속적인 위협,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사임 압박 등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이 파키스탄 경제의 커다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제성장률	7.7	6.2	5.7	2.0	3.7
재정수지 / GDP	-3.2	-4.2	-4.5	-7.6	-5.2
소비자물가상승률	9.1	7.9	7.6	20.3	13.7

자료: IMF, EIU

□ 세계경기 침체 및 사회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 2001년 9월 미국 테러 사태 이후 무사라프 정권의 대미 협조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경제지원이 가시화되면서 광범위한 개혁 및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국내소비 급증, 섬유부문 투자 등에 힘입어 2007까지 4년간 거의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해왔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 이슬람 세력과의 분쟁으로 인한 사회 불안 및 투자 감소,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주요 수출품인 섬유부문 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2008년 2.0%로 급락하였음.
-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성장으로 전환되었으나, IMF 차관 지원조건에 따른 정부의 개발지출 축소, 정국 및 사회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축, 세계경기 불안 지속 등으로 2009년에는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수요 감소 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둔화

- 국제유가 상승과 지진 복구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0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를 기록한 이후,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 SBP)의 긴축 통화정책 및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로 다소 하락하였음.

- 식료품 가격 인상, 보조금 삭감에 따른 연료가격 급등, 수입관세 인상, 공공요금 인상, 파키스탄 루피화 약세 등으로 인하여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3%를 기록하였으나, 국내수요 감소,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2009년에는 13.7%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10년 전기요금 및 연료가격 인상, 수입관세 인상, 취약한 재정상황, 루피화 환율 약세 등 물가상승 요인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음.

□ 기준금리 인하 및 루피화 환율 약세 지속

- 국내수요 감소 및 상품가격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로 돌아서자, 중앙은행(SBP)은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4~11월 중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4%에서 12.5%로 150bp 인하하였음. 향후 물가상승압력이 약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완화가 예상되나,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제약요인들로 인해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8년 유동성 위기 및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미달러화 대비 파키스탄 루피화의 환율이 큰 상승폭을 보이며, 2009년에 루피화의 평균환율이 전년 대비 13.8% 상승한 81.6루피/US\$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IMF 차관지원 조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축소 등 경제지표 개선, 원조국의 지원 약속에 따른 투자자의 신뢰 상승,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환율의 변동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루피화 환율의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어려울 전망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지원, 민영화 추진,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따른 군비 축소, 정부의 세수 증대 등으로 GDP의 2% 수준으로 축소된 재정수지 적자가 2005년 10월 이후 대지진 복구비용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4%대로 증가하였음.
- 2008년에는 식료품 및 연료 보조금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세수가 급감한데다가 정치 불안으로 인해 정부가 경제상황의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당초 목표인 GDP의 4%를 훨씬 초과한 7.6%를 기록하였음.

- 2008년 11월 IMF 긴급구제금융 도입조건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개발지출을 축소시켰으나, 국방비,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 부문의 지출이 증가하여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2%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공부문의 개발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및 섬유부문의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기반

-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노동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 따라, 여전히 파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산업임. 그러나 제조업은 GDP의 20% 이하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 주요 농작물인 면화를 기반으로 한 섬유부문이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면서 파키스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면화는 페스트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가뭄과 홍수에 취약한 작물임에 따라, 면화 작황에 따라 농업부문의 변동성이 매우 심한 편임.

□ 공적채무에 대한 과도한 의존

- 파키스탄은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의 보전을 위해 공적채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대규모의 채무 리스케줄링 및 무상원조를 받았음. 2001~02년 미국의 7억 달러 규모의 원조, 2002년 초 125억 달러의 채무를 30년에 걸쳐 리스케줄링을 받았음.
- 2008년말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IMF로부터 76억 달러의 긴급구제금융 지원 승인을 받은데 이어,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로부터 2년간 52억

8,0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로부터 총 5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2009년 11월 IMF의 지원금액이 113억 달러로 증액되었음.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인구 증가에 따라 인프라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수십 년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임. 전력의 경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약 60%가 전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단전이 실시되고 있음.
- 인프라 건설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파키스탄의 정국 불안 및 경제위기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사업부문은 민간에 개방되었으나, 민간 참여를 유도할 만한 충분한 후속조치 결여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정치 및 사회적 불안이 외국인 투자환경에 악영향

- 저임의 노동력, 대 선진국 우회 수출기지 활용 등 일반적인 개도국의 투자 장점과 함께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인구 1억 7,695만 명의 내수시장 및 주요 원자재 보유 등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음.
- 그러나 정치 및 사회적 불안정 및 테러 위협과 함께 기술 숙련공 부족, 열악한 인프라, 공공부문 부정부패 만연 및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실행 등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IMF 차관지원 조건에 따른 정책 수립 제약

- 2008년말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파키스탄이 IMF의 긴급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어 IMF의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자율권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국내수요 축소를 위한 긴축 경제정책을 포함한 IMF의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들을 수행하여야 하나 국방비, 안보, 개발부문의 지출 확대 등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축소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 상 수 지	-3,606	-6,750	-8,286	-15,402	-2,252
경 상수지 / GDP	-3.3	-5.3	-5.8	-9.3	-1.4
상 품 수 지	-6,341	-9,647	-10,587	-16,769	-10,119
수 출	15,432	17,049	18,188	21,328	18,200
수 입	21,773	26,696	28,775	38,097	28,319
외 환 보 유 액	10,033	11,543	14,044	7,194	11,849
총 외 채 잔 액	33,158	35,877	40,680	46,335	52,527
총외채잔액/GDP	30.4	28.4	28.3	31.1	33.2
D. S. R.	17.3	14.6	11.6	13.0	15.9

자료: IFS,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및 관련제품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라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2008년에는 GDP의 8.2%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따라 국내수요 축소를 위한 긴축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고,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여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4%(약 2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2001년 이후 급증한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상품수지 적자의 50% 이상을 보전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전년도 65억 달러 대비 약 21% 증가한

78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파키스탄의 경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걸프 지역의 건설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투명한 상황임.

□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진정**

- 2008년 10월 대외부채를 감안한 실질적인 외환보유액이 약 30억 달러 수준으로 한 달 수입액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파키스탄의 대외지급불능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11월 IMF의 긴급 구제금융 76억 달러 지원 승인을 받음으로써 긴급한 유동성 위기는 넘긴 상태임.
- 또한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로부터 2년간 52억 8,0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로부터 총 5억 달러, IMF로부터 추가 37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였음.

□ **IMF 긴급자금 지원으로 외채잔액 크게 증가**

- 파키스탄은 2000년까지 외환보유액이 15억 달러 내외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제지원에 따른 경제상황 호조로 외환보유액이 2007년까지 증가세를 보여왔음. 2001년 이후 원조자금 유입으로 총외채잔액은 증가해왔으나, 경제호조로 총외채잔액/GDP는 감소해왔음.
- 그러나 최근 세계경기 침체와 정국 및 사회 불안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 및 외채만기 도래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2008년 11월 IMF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는 넘겼으나, 이후 IMF 및 원조국들의 차관 유입으로 2009년도 외채잔액이 52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자르다리 대통령 당선

-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대통령 사임 이후 2008년 9월 실시된 파키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2007년 12월에 암살당한 부토(Benazir Bhutto) 전 총리의 남편이자 파키스탄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PPP) 공동의장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 자르다리 대통령은 부토 전 총리 집권시절 뇌물수수 등 각종 부패혐의에 자주 연루되어 11년간 수감생활을 한 바 있으며, 부토 전 총리 암살 이후 파키스탄인민당(PPP)의 공동의장이 되어 부토 전 총리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반 무샤라프 정서 등에 힘입어 2008년 2월에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음.

□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 관련 정국 혼란

-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가 이끄는 파키스탄무슬림리그(Pakistan Muslim League-Nawaz: PMF-N)가 무샤라프 전 대통령 재임시 직무정지된 이프티카르 초우더리(Iftikar Chaudry) 대법원장의 복권, 강화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헌법 개정 등 과거사 청산 문제로 파키스탄인민당(PPP)과 이해가 상충되어 연립정권에서 탈퇴 선언을 한 이후, 양당의 정치적 대립으로 정국 혼란이 계속되어 왔음.
- 2009년 2월 초우더리 전 대법원장이 복직되면서 야당의 반정부 시위가 진정되었고, 2009년 7월에는 1999년 쿠데타를 일으킨 무샤라프 장군의 비행기를 납치한 혐의로 공직 선거 출마가 금지된 샤리프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2013년 총선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음.
- 2009년 7월말에는 대법원이 2007년 11월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취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의 조치가 불법이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파키스탄 정국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처벌과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취했던 일련의 조치들을 무효화하는 문제로 인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자르다리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로 인한 혼란 가중

- 2007년 11월 28일 자정을 기해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2007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시행한 37개 법령들의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해소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 자르다리 대통령이 핵 지위권을 유수프 라자 길라니(Yusuf Raza Gilani) 총리에게 이양하였음.
- 그러나 자르다리 대통령을 포함한 수천 명의 부패 혐의자에 대한 사면 조치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무효화되면서 자르다리 대통령은 야당의 사임 압박을 받고 있으며, 2009년 10월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비군사적 원조 확대를 위해 마련한 75억 달러 규모의 '케리-루가 법안(Kerry Lugar Bill)'과 관련하여 파키스탄 군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음.
- 또한 길라니 총리도 잘못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자르다리 대통령과 대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군부도 길라니 총리를 지지하고 있어 자르다리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음.
- 한편,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물가 및 실업률 급등 등으로 인하여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08년 9월 취임 직후 약 64%에서 절반 이하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2. 사회동향

□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사회 불안 요인 상존

- 파키스탄 서부 소수종족연방보호지역(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FATA) 및 북서국경지방(North West Frontier Province: NWFP)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탈레반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 2009년 6월 미국의 공격으로 파키스탄 정부와 이슬람 세력간 평화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이 증가하고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해왔음. 특히 2009년 10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파키스탄 방문시 북서국경지방(NWFP)의 페샤와르(Peshawar)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로 9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미국을 향한 탈레반의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2009년 7월 파키스탄 군대는 탈레반 점령지역인 스왓(Swat) 등 북서국경지방(NWFP)와 소수종족연방보호지역(FATA)에서 2개월 여 동안 벌여온 탈레반 소탕 작전을 완료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 아직 제거되지 못한 탈레반 지도부 축출 압력을 계속 받고 있음.
- 이에 대해 파키스탄 군부는 다른 지역으로 탈레반 세력이 흩어짐에 따라 파키스탄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인도와의 긴장 관계로 인한 인도와의 국경지대 병력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3. 국제관계

□ 탈레반 무장세력 공격에 대한 미국의 지원

- 2001년 9월 미국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전통적 우방관계였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대신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을 받아 왔음.
- 그러나 파키스탄에 남아있는 탈레반 세력에 대한 미국의 축출 요구와 비군사적 원조 확대 관련 '케리-루가 법안(Kerry-Lugar Bill)' 등에 대해 파키스탄 군부가 파키스탄의 안보상황 악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자르다리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른 집권 가능 세력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음.

□ 인도와의 대화 재개에 따른 관계 개선 기대

- 인도와는 1947년 분리 독립 때부터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 대립, 방글라데시 독립, 카슈미르 영토문제 등으로 3번의 전쟁을 포함하여 잦은 분쟁을 겪어왔음.
- 2001년말 이슬람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도 의사당 공격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미국 등의 중재로 양국간 평화협상이 재개된 이후, 2003년 11월 카슈미르 통제선에 대한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간 신뢰회복 조치들이 전개되어 왔음.

- 2008년 11월 뭄바이 테러의 배후에 파키스탄 무장단체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인하여 양국간 대화가 중단되었으나, 2009년 7월 포괄적 대화가 재개되면서 뭄바이 테러 공동조사 합의와 테러 대응 공조에 합의하였으며, 양 핵보유국간 평화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음.

□ 중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

- 인도와 구소련에 대한 파키스탄과 중국의 공통적인 반감으로 인하여 양국이 서로를 중요한 우방으로 인식해왔으며, 중국이 파키스탄 앞으로 원자력 및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는 등 군사관계를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 2006년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핵을 비롯한 에너지, 통상, 인프라, 과학,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8개 합의안에 서명하였고, 2006년 42억 달러에 불과한 양국간 교역규모를 5년 이내에 3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 2011년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편, 2009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¹⁾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파키스탄 앞으로 난민 지원을 위해 6,000만 위안(약 11억 원)의 원조 제공을 약속하였음.

1)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역내 평화, 안보,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 상하이에서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회원국으로 이란, 인도, 파키스탄, 몽골 등 4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음. 2009년 6월 회의에서 벨로루시, 스리랑카가 대화동반자 자격을 얻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독자적으로 외채문제 해결 어려움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대외채무 부담이 과중하여 독자적으로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01년 9월 미국 테러사건 이후 무샤라프 대통령이 집권기반 강화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주요 선진국들의 원조 지원과 채무 재조정 성과를 얻어 내었음.
- 국제사회의 대 파키스탄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2001년 9월) 및 총 30억 달러의 경제지원 자금 제공(2003년 6월), IMF의 13억 달러 규모의 빈곤 퇴치 및 성장촉진 차관(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 공여, 파리클럽의 125억 달러 공공채무에 대한 파격적인 채무재조정 합의, EU의 대 파키스탄 일반특혜 관세제도 부여 등이 있으며, 이외에 여러 국제기구 및 국가들이 원조를 제공하였음.

□ IMF 및 원조국들의 지원으로 긴급 유동성 위기 진정

- 2008년말 파키스탄은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대외지급불능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2008년 11월 IMF로부터 76억 달러의 긴급구제금융 지원 승인을 받음으로써 긴급한 유동성 위기는 넘겼음. 2009년 8월 동 IMF 지원금액이 113억 달러로 증액되어 2009년 11월 기준으로 약 53억 달러가 집행되었음.
- 이외에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로부터 2년간 52억 8,0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로부터 총 5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함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 (2009.12)	D2 (2008.10)
OECD	7등급 (2009. 4)	6등급 (2008. 4)
S&P	B- (2009. 8)	CCC+ (2008.10)
Moody's	B3 (2008.10)	B2 (2008. 5)

* Euromoney: 112/186 (2008. 9) → 143/186 (2009. 3) → 124/186 (2009. 9)

* I.I.: 98/174 (2008. 9) → 145/177 (2009. 3) → 143/178 (2009. 9)

* I.C.R.G.: 135/140 (2008. 9) → 133/140 (2009. 6) → 126/140 (2009. 11)

- 자르다리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 불안 고조,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 경제상황 악화, 재정적자 증가 등의 사유로 2009년 4월 OECD 국가신용도평가 회의에서 국가신용도 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2008년 10월 Moody's는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및 미국,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적기에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환보유액이 급감함에 따라 파키스탄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등급을 B2에서 B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파키스탄의 대외 유동성이 개선되고 재정적자가 감소하면서 대외지급불능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S&P는 2009년 8월 외화표시 장기채권등급을 CCC+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3. 주요 ECA 인수 태도

- US Eximbank : 제한적 인수가능
-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Atradius :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3년 11월 7일(북한과는 1972년 11월 9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8), 이중과세방지협정(1987), 투자보장협정(1988), 항공협정(1996)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파키스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파키스탄	2007	2008	2009.1-11	주요품목
수 출	678	840	636	합성수지, 철강관, 무기류
수 입	491	631	324	섬유제품, 동제품, 천연섬유사
합 계	1,169	1,471	960	

자료: 한국무역협회

- 파키스탄과의 교역 규모는 2007년 11억 6,900만 달러, 2008년 14억 7,1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대 파키스탄 수출 및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여 교역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 대 파키스탄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 9월말 현재 62건, 약 4,650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고 있음.

VI. 종합 의견

- 농업 및 섬유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 지속적인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과도한 외채 등으로 파키스탄의 경제여건은 열악하나,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대미 협조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경제지원을 받아 최근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해왔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정치·사회 불안 고조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2008년 2.0%로 급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민간소비와 산업생산이 다소 회복되어 3.7%의 완만한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8년말 외환보유액 급감으로 파키스탄은 대외지급불능 위기에 처했으나, 2008년 11월 IMF의 긴급구제금융 76억 달러 지원 승인을 받음으로써 긴급한 유동성 위기는 넘긴 상태이며, 이외에 국제사회의 추가 금융지원을 받기로 합의되어 경제가 다소 회복되어 가고 있음.
- * 2009년 4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 파키스탄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2008년 10월 Moody's는 외화표시 장기채권등급을 B3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파키스탄의 대외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2009년 8월 S&P는 CCC+에서 B-로 상향 조정하였음.
-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무샤라프 전 대통령 재임시 부패혐의로 사면조치를 받았던 자르다리 대통령이 사임 압박을 받음에 따라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폭탄 테러 등 공격이 계속됨에 따라 사회불안도 지속되고 있음. 정국 및 사회 혼란이 파키스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문연구원 백 승 주 (☎02-3779-6648)
 E-mail: sjpaik@koreaexim.go.kr